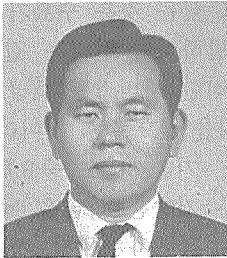


올해는 勞使和合과 自動化로 競爭力 回復을!

— 産業의 自動化,
情報化
促進對策 解説 —



朴 在 麟
본회 정보산업부장

정부는 최근 상공부·경제기획원·재무부 등 범 부처적으로 산업의 自動化·情報化를 촉진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시행해 나아가기로 하였다.

우리 전자공업진흥회도 여기에 발 맞추어 지난 2월 제15회 정기총회에서 올해를 「새마음으로 일하는 해」로 정하고 勞使和合을 바탕으로 自動化와 情報化를 촉진시켜 잃어가고 있는 근로 및 투자 의욕을 되살려 수출과 소득의 증대를 극대화시켜 나아가기로 하였다.

이는 우리 업계가 지난 2~3년동안 「원」화절

상과 임금상승 등으로 원가는 턱없이 높아지고 근로의욕은 오히려 감퇴되어 생산성과 품질이 저하됨으로서 수출과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임금상승에 의한 소득 증가보다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가는 악순환의 쓰러린 경험을 하고 나서야 나온 대책이라는 면에서 때늦은 감도 없지 않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모두 합심의 노력이 간절히 요구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어차피 우리 업계가 살아가기 위해서 自動化·情報化를 해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서 나온 지원책이라는 측면에서 전체산업의 自動化·情報化에 기폭제 역할을 해 국제경쟁력 회복에 크게 기여해 나아감은 물론, 특히 우리 전자, 정보산업계로서는 이번 대책으로 창출될 내수로 하여금 정보통신산업의 투자와 기술에 활기를 불어 넣어 우리 전자산업의 구조고도화에 일대 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참으로 크다고 보여진다.

이번 대책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自動化·情報化를 추진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아간다는 것이다. 즉, 자동화시설 등에 대한 금융지원 제도를 새로 마련해 금년에 5,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금리는 10.5%~12.4%이며 융자기간은 8년이고 소요자금의 100%까지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통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다.

이밖에 또 다른 자금지원 제도로는 전부터 시행해온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자금과 중소기업 정보화 자금이 있는데 금년에는 自動化에 500억원, 情報化에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년에 자금지원의 특징은 동종 업계간 협의를 통해 시범 자동화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그 업체는 자동화의 경험을 다른 동종 업계에게 알려주게 함으로써 지원의 효과를 보다 높여 나아가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 두번째로는 자동화 투자업체에 대한 세제 감면조치로서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자동화기기 및 소프트웨어 도입에 대해 60%의 관세를 감면해주고 자동화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내용년수를 단축토록 하며 중소기업의 자동화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액의 15%(外國產은 5%)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투자 준비금의 손금도입률도 사업자산 가액의 20%까지 적용토록 지원제도를 대폭 강화시켰다.

세번째로는 자동화에 대한 인력 양성의 확대와 기술 및 정보 제공 등의 행정 지원도 크게 강화시켰는데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생산성본부(KPC) 내에 「공정별 자동화 모델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업의 자동화에 대한 현장 기술지도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6개 기관으로 하여금 자동화 및 전산 전문인력의 양성을 확대해 나아가면서 신설된 산업정보원 등으로 하여금 自動化·情報化에 대한 국내외의 최신 정보를 신속히 기업들에게 제공해주도록 하였다.

네번째로는 自動化·情報化 관련업체들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체산업의 自動化·情報化를 촉진해 나아가도록 하고 있는데 예컨대 수입에 의존해 온 자동화 핵심기기 및 부품의 국산 개발을 위하여 금년부터 '93까지 모두 36개 기술개발 과제에 대해 매년 40억원의 공업기반기술 개발자금을 지원토록 하

였으며 또한 자동화기기 試作品 개발을 위해 공업발전기금과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으로 매년 60억원씩을 지원해 나아가도록 하고 있다.

물론 정부의 이러한 대책들이 업계 입장에서 보면 自動化·情報化를 추진하는 데 있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정부로서는 관련 부처간에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원의 역량을 다한 것이라고 볼 때 남은 것은 이제 우리 업계가 이러한 지원 제도를 백분 활용하여 自動化·情報化를 적극 추진해 나아가야만 한다.

본회로서도 우리 업계의 自動化·情報化를 촉진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화, 정보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 업계의 자동화 추진 계획의 수립, 자동화 촉진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의 건의, 업계의 자동화 추진 과정상의 애로를 파악해 이를 개선토록 하며 업계를 대상으로 자동화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제도의 활용을 극대화시켜 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나아가고자 한다.

또한 자동화 관련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업계 공동으로 국산 自動化·情報化시스템 보급확대사업의 추진과 自動化·情報化시스템의 핵심 기술 및 부품의 개발을 촉진해 나아가도록 하며 업계간에 필요한 부문에 표준화도 적극 도모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 이와 다른 한편으로는 자동화의 수요 측면에서 동종 업체들로 품목별 협의회를 구성해서 업체간 협력을 통해 自動化·情報化를 추진해 나아가도록 뒷받침하고자 한다.

즉, 협의회에서 자동화 선발업체를 시범업체로 선정해 그 업체가 자동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품에 표준화는 물론 정부의 지원 자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신 자동화 선발업체는 후발업체들에게 자동화의 경험을 알려주어 그 업체들의 자동화를 도와주는 상부상조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아가고자 한다.

본회는 또 이렇게 해서 自動化·情報化를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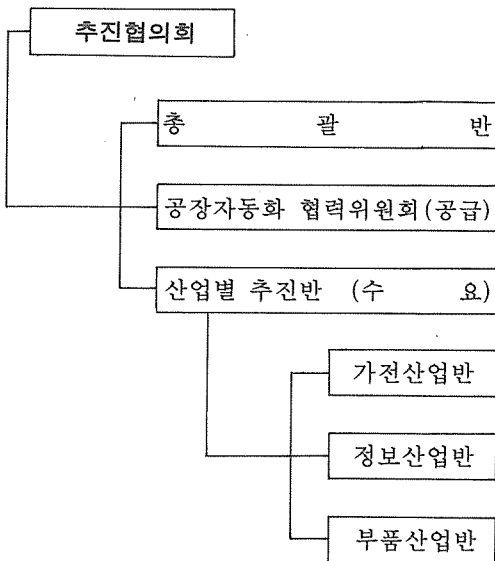
공적으로 추진한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우수 업체를 뽑아 공이 큰 기업인과 기술자를 시상함으로써 일선의 생산기술진과 중소·중견기업인들의 사기를 드높여 自動化·情報化의 의욕을 더 한층 고취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수출증대와 신제품 개발에 공이 큰 기업인이나 연구개발자들에게는 여러종류의 상이 주어졌지만 생산 현장의 기술진은 늘 그늘에 가려져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자동화의 필요성은 절감하면서도 많은 기업이 주저하고 있는 요인 가운데에는 그동안 우리가 생산 현장에서의 품질 및 생산성의 향상과 원가절감을 위한 공정개선 등의 자주적인 생산기술 개발이 부족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때 지금 그들의 의욕을 북돋아 스스로 자동화의 노력을 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모두 새삼 깨달아야 할 때라고 보여진다.

참고로 전자업계의 자동화·정보화 촉진사업 계획의 내용 중 추진체제, 추진사업 등을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추진체제



—추진 협의회

- 기능 : 계획수립, 실태점검, 촉진대책 협의
- 구성 : 수요업체, 공급업체, 유관기관, 전문가 (15명)

—총괄반(통신산업과)

- 임무 : 실태조사, 사업총괄, 촉진대책 건의, 협의회지원 등

—공장자동화 협력위원회

- 구성 : 공장자동화업체 10개사
- 기능 : 공장자동화 촉진사업 협력 및 지원

—산업별 추진반

- 편 성 : 3개사(가전, 정보산업, 부품)
- 추진방법 : 품목별 협의회(동종업계간)
- 내 용 : 표준화 등 자동화 노력, 자동화 시범업체 견학 등

○추진사업

① 추진체제 구축

- 추진협의회 구성 운용 : '91년 3월
- 공장자동화 협력위원회 구성 운용 : '91년 3월

② 자동화실태 및 계획 조사

- 목 적 : 실태점검, 계획 수립 등
- 조사내용 : 실적 및 계획, 애로파악 등
- 기 간 : '91년 3월

③ 자동화추진 4개년계획 수립

- 계획기간 : '91년~'94년(4개년)
- 주요내용
 - 년도별 자동화 추진 목표
 - 자동화 투자 계획
 - 자동화 촉진 기술개발 계획 등
- 작업기간 : '91년 5월~6월

④ 자동화·정보화 지원시책 계몽

- 자동화·정보화 세미나 및 시책 홍보
 - 1차('90년2월) : 자동화·정보화 시책
 - 2차('91년5월) : 자동화·정보화 촉진 세미나 개최
- 기업의 자동화·정보화 가이드(팜프렛) 발간 보급
 - 주요내용 :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소개, 국제 자동화·정보화 기기 및 기술 정보, 자동화 성공사례 등

● 발간 보급 기간 : '91년 5월

⑤ 산업별 자동화 추진사업

- 추진 : 진흥회내 품목별 협의회 중심
- 대상 : 수출 주요품종 중소·중견 중심 우선
- 목표 : 5개품목(가전, 통신, 부품, 반도체, 컴퓨터)

-사업

- 자동화·정보화 추진 시범업체 선정, 추진 지원 요청(개발자금 보조 등 지원 요청)
- 자동화·정보화 추진을 위한 표준화
- 시범업체 주관 사례 발표 및 견학

⑥ 자동화·정보화 우수업체 발굴 포상

- 대상 : 중소·중견기업
- 부품 : 개인 및 업체
- 심사 : 자동화·정보화 추진협의회

-시상 : 상공부장관 및 진흥회장

여하튼 自動化·情報化의 축진이 지금 우리가 살아 번영해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좌우하는 당면과제인 데다 정부가 여기에 의욕적인 지원 정책을 가시적으로 떠나아가고 있어 올해야말로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합심 노력해 나아간다면 잃어가던 경쟁력을 되살려 제2의 도약을 이룩해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산업의 자동화·정보화 촉진으로 창출될 국내 수요를 활용해 우리 정보통신산업이 발전의 기반을 확고하게 쌓아 '90년대는 물론 나아가 2,000년대의 고도정보화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